

‘김경준 수사’ 정치권 사활건 공방

“냉정한 판단 해 달라”

신당, 국민에 호소... “李 후보 기소 명약관화”

대통합민주신당은 19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집중될 이번 일주일이 연말 대선 관세를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과상공세를 계속하는 한편 국민을 상대로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를 만들어 준 국민은 선택의 기로에서 평화·민주·선진화·청렴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단했다”며 “국민이 남은 기간에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50% 이상이 BBK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50% 넘는 국민이 적으로 보이는가. 이 후보와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비리 보호를 위한 전횡에 대한민국을 희생시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중률 의원은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한나라당이 김경준씨에게 BBK 사건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김씨를 거짓말쟁이이자 회대의 금융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상당한 수사기록을 축적해왔고,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이 후보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임내현 부총장 겸 감사본부장은 “한나라당 저격수인 홍준표 박계동 정경근 의원이 신당 정동영 후보나 여권 중진이 김경준 귀국에 깊이 관여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이자 개인과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신당은 이와 함께 이 후보 자녀의 유령취업 및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소속 의원들이 국세청 앞에서 이 후보에 대한 세부조사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과상공세를 펼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찰이 BBK 의혹의 핵심인 김경준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민의 길’ 회원(왼쪽)과 ‘민주연대21’ 회원들이 요동치는 대선 정국을 대변하듯 서로 상반된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BBK는 헛방·불발탄”

한나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한나라당은 19일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신당의 총공세에 맞서 ‘헛방’, ‘불발탄’으로 주장하며 이명박 후보 방어에 최선을 다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관련자들에게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모든 의혹을 해명토록 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전 당력을 집중, 대국민 선전전에 적극 나섰다. 또 검찰이 ‘판마음’을 먹지 않도록 압박의 고비를 당겼다.

강제세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법에 따라 정의를 갖고 모든 사건을 양심에 따라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과거와 달리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검찰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사협조를 위해 내 보내고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일부러 흘린다거나 왜곡되게 전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 후보를 검찰이 소환하는 일은 법률정신에 비추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경준 사건은 불발탄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회대의 금융사기꾼이자 위조, 횡령 범죄자인 김경준씨가 국내에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나지만 범여권이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에서 주장했던 것이 모두 허구였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한방을 기대했지만 모두 헛방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김경준과 그의 거짓말,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가 이번 대선을 혼돈의 늪으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는데 뭔가 계산이 있다는 제스처로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층을 잡아라”

대선 한달 앞두고 20%대... 막판 변수 부상

“부동층을 잡아라”

각 당이 부동층 흡수에 비상이 걸렸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부동층이 다시 증가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을 보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동층은 줄어드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10% 초·중반까지 떨어졌던 부동층이 최근 다시 20% 대로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한국갤럽 조사(18일 실시)에서 부동층은 19.2%로 지난달 29일 조사(11.7%)에 비해 7% 포인트 이상 늘었고, 한겨레신문이 리서치플러스와 실시한 조사(17일 실시)에서도 무응답층은 22.9%로 1주일 전 조사(11.7%)보다 크게 증가했다.

서울신문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실시한 조사에서도 부동층은 21.5%로 지난달 말 조사의 18.5%에 비해 상승했고, 문화일보-디오피니언 조사에서도 13.4%로 지난달 말보다 4% 포인트 늘었다.

올해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가 3천700만명 정도라고 보고, 이번 선거의 투표율을 2002년 대선 때와 같은 70%라고 가정하면 현재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는 20% 인과각 수치의 부동층은 500만명 인과각이나 된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양

강 구도가 형성될 경우 대선 결과 차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수적이다. 최근 부동층의 증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BBK 정국’의 불확실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번 대선의 경우 ‘이명박 대세론’에 힘입어 부동층이 일찌감치 줄었지만, 보수 진영인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출마에 이어 ‘김경준 송환’이라는 BBK 변수까지 본격화하며 관망세로 돌아선 부동층이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 여부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한귀영 실장은 “대부분의 주말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20% 안팎인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볼 때 부동층이 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라 부동층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TNS코리아의 이상일 이사는 “아직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가 3천700만명 정도라고 보고, 이번 선거의 투표율을 2002년 대선 때와 같은 70%라고 가정하면 현재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는 20% 인과각 수치의 부동층은 500만명 인과각이나 된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양

/연합뉴스

강기정, ‘이명박 저격수’ 나서

자녀 위장취업 의혹 제기 이어 국세청에 ‘탈세 제보서’ 제출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광주 북갑·사진) 의원이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MB) 저격수로 새롭게 떠올라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이 후보 자녀의 위장 취업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15일에는 국세청을 찾아가 이 후보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탈세 제보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에 따른 탈세뿐 아니라 이 후보의 건물 임대소득 신고에서도 광범위한 탈세 의혹이 있다는 제보였다.

강 의원 공격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문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서서 “이명박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을 관리하는 대명



기업에 큰딸과 아들이 ‘유령 직원’으로 등재, 8천5백만 원의 임금을 준 것으로 꾸며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상당수 언론에서도 흡입 내기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자칫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은 이 내용의 기사는 인터넷상에 유포되면서 해당 기사마다 수만~수천 건의 댓글이 달아지는 등 파장이 확산했다.

급기야 이 후보는 대국민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14일에는 4천300만 원의 세금을 일괄 납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찰이 날 부를 이유 없다” 소환 부정적

이명박, 토론회서 의혹 해명 주력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9일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는 데 대해 “검찰이 조사를 해보면 저를 부를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검찰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김대중 때 검찰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 법 검찰의 양심을 믿고자 한다. 정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과거 이 후보에 대한 언론인터뷰에서 BBK를

장려했다는 내용이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당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 제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며 “또 다른 인터뷰, 중간지마다 보도가 다르게 나왔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미 BBK가 설립돼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주가 조작할 전문 지식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한민국 법이 살아 있다면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딸과 아들의 위장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바쁘게 살면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양심 선언하고 새 출발하라”

한나라당 ‘反李 세력’ 탈당 畧 지지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측은 19일 BBK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명박 대선후보측의 공격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했다.

이혜연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법적 책임이 가려질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는 게 도리”라고 신중함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BBK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민란’이니, ‘2중대니’, ‘김경준은 회대의 사기꾼’이니 하는 등의 감정적 연사는 자제해야 한다”면서 “자녀 위장취업, 탈세, 도둑동 땅투기 건, BBK 주가조작 연루 등 중대한 도덕적 하자를 보고도 (우리

가) 입을 다물어야 ‘여권의 2중대’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 건지 한나라당에 되묻고 싶다”며 전날 한나라당의 ‘2중대’ 발언에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특히 그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면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양심선언하고 다시 출발하라. 대선까지는 아직 31일이나 남았다”며 BBK 사건과 관련한 이 후보의 고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한나라당 중앙위원 40여 명과 일반당원 360명 등 총 400여명이 대거 탈당.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캠프측은 밝혔다.

BBK 의혹을 계기로 한나라당내 반(反) 이명박 성향의 인사들이 이회창 후보 쪽으로 움직이는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산형인내 (산형인내) - A large advertisement for a health or insurance product, featuring a list of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Public Brokerage National Top Ranking 1st Pass Rate) - Advertisement for a public brokerage training program, highlighting a 100% pass rate and current enrollment.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Public Brokerage Specialist Academy) - Advertisement for a specialized academy for public brokerage, offering courses and exam preparation.